바이브 코딩이 바꾸는 세상

한 사람과 AI가 오피스·어도비를 복제했다

파워포인트·포토샵·엑셀·워드·프리미어의 무료 클론을 써 보고,
같은 방식으로 '한글' 편집기까지 2시간 만에 만든 이야기

유튜브 '스마트대디_SmartDaddy' 영상(7분 52초) 정리 ·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

무슨 일이 있었나 · 0:00

연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공짜로 풀렸다

1명
미국 개발자 한 사람이 AI로 개발

10개
어도비 계열 7개 + 오피스 계열 3개 앱

100만 원+
대체 대상의 1년 구독료(어도비 약 90만 + MS 오피스 약 12만)

0원
MIT·Apache 2.0 오픈소스로 공개

포토샵 → PhotoCraft · 프리미어 → FilmCraft · 일러스트레이터 → VectorCraft · 애크러뱃·애프터 이펙트 등
워드 → WordCraft · 엑셀 → GridCraft · 파워포인트 → DeckCraft

메뉴 배치까지 원본과 거의 똑같다. 포토샵 클론은 깃허브 별 약 5만 2천 개.

어떻게 만들었나 · 6:04

코드를 훔치지 않고, 설명서만 보고 다시 만들었다

STEP 1
공개된 설명서·메뉴·파일 규격만 준다

→

STEP 2
AI가 처음부터 구현 (Claude Opus 5.5)

→

STEP 3
Rust로 윈도·맥·리눅스 지원

→

STEP 4
오픈소스 공개, CLI·MCP로 AI 에이전트도 조작

클린룸 방식 원본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공개 명세만으로 다시 구현하는 방법. 예전엔 큰 팀과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일을, 이제 한 사람이 AI와 함께 해낸다.

실사용 테스트 · 0:50 – 6:04

평소 작업 다섯 가지를 끝까지 해 봤다

원본 → 클론	해 본 작업 (된 것)	아쉬운 점
파워포인트 → DeckCraft	기존 .pptx 보고서 열기, 차트 값 수정, 애니메이션 재생	차트 숫자 표시 누락, 한글 입력 불가(붙여넣기만)
포토샵 → PhotoCraft	피사체 선택·마스크로 배경 제거, 레이어, 텍스트·테두리로 게임 썸네일 완성	생성형 AI 기능 없음, 전문 작업엔 부족
엑셀 → GridCraft	수식 채우기, 표 변환, 피벗 테이블, 원본 수정 시 결과 연동	데이터 막대·아이콘 누락, 구형 .xls 안 열림
워드 → WordCraft	이미지·목차·표·메모, PDF 내보내기, 한글 입력 양호	영상에서 큰 문제 언급 없음
프리미어 → FilmCraft	컷 편집, 크롭·위치 조정, 전환 효과, 1.5배속 — 단축키도 동일	다섯 중 결과물이 가장 아쉬움

유튜버 평가: **워드·엑셀·파워포인트는 개인 용도로 고려해 볼 만**, 엑셀은 PPT보다 완성도가 더 높다

직접 만들어 보기 · 6:04

같은 방식으로 ‘한글’ 편집기를 만들었다

2시간

AI에게 지시한 횟수는
단 두 번

시작	공개된 파일 규격만 주고 원본 프로그램 코드는 절대 못 보게 한 뒤 프롬프트 입력
50분 후	첫 버전 완성 — 그런데 편집기가 아니라 **뷰어**가 나옴. 원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지시
2.0	메뉴·도구 상자·눈금자까지 갖춘 편집기. 한글 입력, 글자 모양, 표 만들기·셀 합치기, 쪽 나누기 동작
아직	머리말·각주 등은 미지원. 그래도 문서 받아 고쳐 보내기는 충분

원본을 얼마나 대체할까 · 7:03

50–60%

제작자들이 보는 대체율이자, 유튜버가 직접 써 본 체감치.
완벽하진 않다. 그러나 이미 ‘쓸 만한’ 수준이다.

주의할 점 · 7:03

아직 당장 갈아탈 단계는 아니다

저작권·특허 미검증

"원본 코드를 안 봤다"는 주장은 아직 외부 검증 전. 어도비는 특허를 수천 건 보유

화면 유사성 문제

메뉴 배치와 화면이 이 정도로 비슷해도 괜찮은지는 아직 모른다

원조 기업의 대응 미정

어도비·MS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

안정성·완성도

알파 버전. 버그가 많다는 평가, 색 관리·안정성·플러그인 지원이 과제

영상의 결론 오늘 당장 학교·회사 프로그램을 바꾸긴 어렵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정도 프로그램을 이제 누구나 AI로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왜 중요한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던지는 질문

잠금 효과가 약해진다

어도비의 힘은 기능만이 아니라 생태계에 묶어 두는 데서 나온다. 갈아타는 비용이 낮아지면 구독 갱신이 어려워진다.

시장도 먼저 반응했다

발표 주간 어도비 주가 하락. 올해 2월에도 AI 업무 도구 발표 뒤 SaaS 주식 약 2조 달러가 증발했다.

“소프트웨어는 끝났다”?

개발자 본인의 대담한 주장. 업계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주장으로 본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 실력인가

가치가 내려가는 것

- 코드를 한 줄씩 직접 치는 속도
- 기존 제품의 기능을 흉내 내는 것만으로 만든 서비스
- “만들 수 있느냐” 자체

가치가 올라가는 것

- 무엇을 만들지 정확히 정의하는 힘 — 요구사항·규격
- 결과를 검증하는 눈 — ‘뷰어’를 걸러낸 그 한 번
- 운영·보안·데이터 품질까지 책임지는 설계
- 나에게 필요한 기능만 골라 담는 기획력

토론과 실습

같이 생각해 볼 질문

Q1 원본의 50~60%만 되는 무료 클론이라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쓰고 어떤 상황에선 안 쓸까?

Q2 메뉴와 화면까지 똑같은 클론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코드를 안 봤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Q3 매일 쓰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만 남긴 '나만의 버전'을 만든다면,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까?

과제 연결(안) **rusync** — rsync 소스를 보지 않고 매뉴얼과 동작 명세만 AI에게 주어 Rust로 다시 구현하기. 이번 영상의 클린룸 방식을 직접 체험

한 문장 정리

만드는 일은 AI가 빨라졌다.
무엇을 만들지 정하고, 검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

참고 자료

영상: 스마트대디_SmartDaddy, “오늘, 파워포인트·엑셀·포토샵가 전부 죽었습니다” (youtu.be/GNNmGwyduao)

앱 목록·런처: getartcraft.com/apps · Trending Topics (2026-10-12) · Computing, “This time, software really might be over”